



07-42 (통권 273호)

2007.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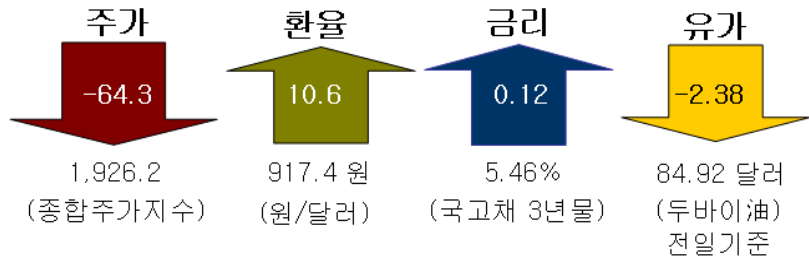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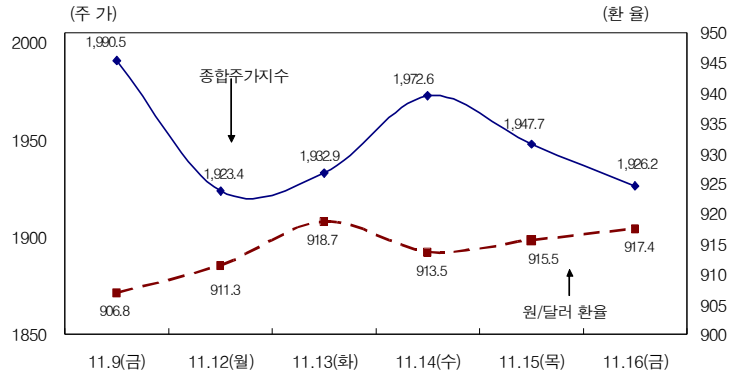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외환위기 10년, 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 변화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9~11.1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외환위기 10년, 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 변화	1
주간 경제 동향	15
□ 실물 부문 : 생산자 물가 상승 추세	15
□ 금융 부문 :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주가의 급등락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기업전략실 : 이 주 량 연구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환위기 10년, 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과 가계

2007년 11월은 외환위기 이후 만 10년이 되는 달이다.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요약되던 국내기업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체질을 개선했고 현재 대부분의 경영 지표들은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극심한 고용불안과 경제 불안정에 노출되었던 가계(개인) 또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주가 역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성과의 향상이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외부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우려도 있고, 국가 경쟁력(2001년 29위, 2006년 38위) 및 기업효율성(2001년 35위, 2006년 45위)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경제의 전환점이 된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국내기업과 가계의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안정성, 신용도, 양극화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기업 재무구조

외환위기 이후 내실 위주의 경영이 보편화되면서 국내기업들의 수익성, 재무안정성, 신용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업 간 양극화의 문제의 해소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수익성은 향상)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타파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수익성도 좋아지고 경영방식도 수익성 위주로 재편되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기업 경상이익은 1997년 -0.34%에서 2006년에는 5.69%로 개선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주식 배당률도 3.20에서 11.87로 4배가량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1991~96) 연평균 영업이익률(7.1%) 보다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영업이익률(6.6%)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기업 영업환경도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은 개선)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늘여 탁월한 기업 안정성 개선을 이룩하였다. 400%가 넘는 부채비율은 105%로 하락하였고, 자기자본비율(19.06%→48.71%), 차입금의존도(50%→23%) 등 거의 모든 안정성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비율 규제에 의한 100%대의 지나치게 낮은 기업 부채비율은 기업들의 투자부진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단기부채비율(60.3%)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신용도는 상향) 신용 등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신용도는 외환위기 이후 뚜렷한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8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의 653개 (부도기업 48개 포함) 기업의 신용등급을 분석해 보면, 1998년 말 30%에 미치지 못하던 신용등급 A군의 비중이 2006년 말에는 50%를 상회한 반면에, 신용등급 BB 이하군의 비중은 30%에서 10% 초반으로 줄었다. 한편, 투기등급 상하향배율¹⁾²⁾은 2002년 이후 1.0을 하회하고 있어 투기등급 기업군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 업체가 상승한 업체보다 더 많았다. 이는 기업 신용등급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기업간 양극화는 다소 완화) 심화되고 있던 기업간 실적의 양극화 현상도 2005년 이후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이익률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연동하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기업의 매출액이익률은 상향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하향하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만 2005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기업의 양극화 조짐은 양상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96년 대기업의 39% 수준이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계속 하락 하여 2005년에는 33%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하락은 개인 임금격차로 이어져 가계 소득 양극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3. 기업과 함께 가계의 재무상태도 개선

가계의 재무상태도 2002년을 저점으로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회복하고 있다. 수익성과 신용도는 외환위기 수준 이전으로 회복 또는 상향되었다. 그러나 **고용불안정과 가계부채 등 안정성 문제와 소득 양극화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었다.**

(수익성은 개선)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가계의 수익성도 개선되었다. 1997년 2,141천 원이던 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2006년 3,268천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가계의 경상소득과 기업의 경상손익을 비교해 보면, 2002(=1.0)년을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 차이가 0.95(2004년), 0.71(2005년), 0.52(2006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기업 수익성 개선이 가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용도는 향상) 기업의 신용도 개선과 함께 개인의 신용도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개인의 신용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개인 신용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4년 2/4분기에 대비하여, 2007 2/4분기에는 신용 상위등급인 1,2,3 등급의 비중은 늘어나고, 신용 하위등급인 8,9,10 등급의 비중은 줄었다. 개인의 평균 신용등급 역시 4.56(2004년), 4.46(2005년), 4.39(2006년), 4.34(2007년)로 개선되었으며, 전체 신용지수도 상승하였다.

(안정성은 악화) 재무 안전성의 지표인 개인의 부채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가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 경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1997년 기업부채의 46% 수준이던 가계부채가 2006년에는 14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기업은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인 반면에 가계는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킨 것이 주원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구인구직 비율은 1997년 80.3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7.2까지 떨어졌다가 2002년 74.8로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2006년 현재 50.1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고용 불균형이 외환위기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 양극화 심화) 가계 부분의 양극화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소득 양극화 지수인 Wolfson지수³⁾와 ER지수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지수는 199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격히 상승하여 2005년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시사점과 개선과제

외환위기 10년에 지난 현 시점에서 국내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황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문제와, 가계부채, 고용 불안정 등은 이전보다 악화되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제) 정부는 기업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성 증진,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는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에 집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M&A 지원책』 등의 신속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 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의 유인책 마련이 우선이다. 셋째,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은 개인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이 발생한 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후 보조적 노동시장 정책' 보다는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고, 실직 시에도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는 재교육, 근로 알선, 취업 위주 교육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의 과제) 첫째,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기업들의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액총이익율은 25.8%로서,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총이익율14.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요구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여야 한다. **둘째, 부채 구성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절대적인 부채비율은 100%대로 낮아졌지만, 단기부채비율이 여전히 높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단기부채비율인 21.6%와 비교하면 3배 수준인 60.3%에 이른다. 과도한 단기부채는 외부 환경 변화와 충격 대응에 큰 부담이 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과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의 계속 제공을 위하여 신 성장 동력 발굴 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상장 제조업체의 유보율이 650%를 넘어섰고, 기업 유보자금이 340조 원에 이를 정도로 풍부해진 기업 자금을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지속성장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기업에게도 지속성장을 위한 모멘텀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계 및 개인의 과제) 첫째,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여야 한다. 기업 부채의 46% 이던 가계부채 비율이 140%가 된 현 시점에서는 개인은 가계 부채를 줄여 재무안정성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자기계발로 자기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평생직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에 대해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 자기계발로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바꾸어야 한다.** 경제성숙기에 접어드는 우리 경제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위주의 가계자산 구성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상품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전환하여 가계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1) 기업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B이하 의 5등급으로 구분되며, 'AAA~BBB'는 투자등급으로 'BB~BB이하'를 투기등급으로 분류한다.
- 2) 신용등급 상하향배율: (신용등급 상승업체의 수 / 신용등급 하락업체의 수) 이며 1.0을 하회하면 당기 신용등급 하락업체의 수가 상승업체의 수 보다 많음을 의미함
- 3) Wolfson 지수: 중간부분이 소멸하여 양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양극화로 정의하고 지수화 함
- 4) Esteban & Ray 지수: 분포의 어느 부분에서든 2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이질적 집중 현상을 양극화로 정의하고 지수화 함

< 외환위기 10년, 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 변화 >

외환위기 10년, 기업, 가계 재무 상태 호전

- 대부분의 경영지표 정상화
- 사상 최고치의 주가
- 가계 불안정 해소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과 과제

수익성	안전성	신용도	양극화
경상이익 개선 기업가치 개선	부채비율 하락 자기자본 상승	신용등급 상승	대/중소기업 매출액 이익을 격차 해소
영업이익 하락	단기부채 과도 기업투자 부진	신용등급 양극화	대/중소기업 생산성 양극화 지속

가계 재무 상태의 명암

수익성	안전성	신용도	양극화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 증가	가계 부채 급증 고용안정성 악화	개인 신용도 상향 전체 신용지수 상승	소득 격차 확대 가계 양극화 심화

시사점 과 개선과제

정부	기업투자 장려책 마련 / 기업 양극화 해소 / 고용 안정성 제고
기업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 부채 구성의 질적 개선 / 신성장동력 발굴
가계 및 개인	가계부채 축소 / 직업에 대한 유연한 접근 / 자산 포트폴리오 수정

1.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국내기업과 가계

○ 경제위기 탈출에 성공한 국내기업과 가계

- 2007년 11월은 외환위기 이후 만 10년이 되는 달로서 국내기업과 개인은 경제위기에서 탈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요약되던 국내기업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체질을 개선했고 현재 대부분의 경영 지표들은 이전 수준을 상회함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극심한 고용불안과 경제 불안정에 노출되었던 개인 또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기업 성과의 향상이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외부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우려도 있고, 글로벌 수준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내기업의 성과 향상이 세계적 호황, 높은 원/달러 환율, 금리 하락 등 외부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는 개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상대적 국가 경쟁력(2001년 29위, 2006년 38위) 및 기업효율성(2001년 35위, 2006년 45위)은 오히려 하락

<연도별 국가경쟁력 · 기업효율성 변화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 경쟁력	29위	29위	37위	35위	29위	38위
기업 효율성	35위	27위	45위	29위	30위	45위

자료: 국제경영개발원(IMD), 2006년 세계 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 우리 경제의 전환점이 된 외환위기 10년의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개인들의 재무상태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자 함

2.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기업 재무구조

○ 기업의 수익성

- (기업)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타파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수익성도 좋아지고 경영방식도 수익성 위주로 재편됨
-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의 경상이익률은 크게 개선되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의 비중이 -0.34%에서 5.69%로 개선
- 또한, 같은 기간 주식 배당률도 3.20에서 11.87로 4배가량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 역시 외환위기 수준을 상회
-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1991~1996) 연평균 영업이익률(7.1%) 보다 외환위기 이후(1997~2006) 연평균 영업이익률(6.6%)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기업 영업환경도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조업 수익성 변동 현황>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자산 경상이익률	-0.30	-1.52	1.38	1.24	0.35	5.08	5.15	9.38	7.81	6.64
경상이익/ 매출액	-0.34	-1.84	1.68	1.29	0.35	4.69	4.68	7.79	6.50	5.69
영업이익/ 매출액	8.25	6.11	6.62	7.40	5.52	6.74	6.87	7.56	6.12	5.34

자료: 한국은행 경제 통계국 기업통계팀

<배당률 변동 현황>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배당률	3.20	4.14	6.07	5.89	5.38	6.43	7.72	12.51	12.44	11.87
배당성향	17.68	15.75	15.01	17.43	19.25	11.75	19.16	17.71	19.04	19.22

자료: 한국은행 경제 통계국 기업통계팀

○ 기업의 재무안정성

- (기업의 재무안정성) IMF 이후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늘여 안정성 면에서도 탁월한 개선을 이룸
- IMF의 요구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자산매각, 구조조정, 계열사 축소 등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거의 모든 방법을 시행
- 이를 통해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거의 모든 안정성 지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됨
- 그러나 100%대의 부채비율은 국내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과도한 단기차입금 비율(60.3%)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됨

<기업의 재무지표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항목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본	103	129	182	180	193	246	279	326	365	401
부채	406	390	391	379	352	333	344	340	368	396
자산	509	519	574	559	545	578	622	666	733	797
부채비율	424.64	336.41	235.13	221.10	195.58	144.66	131.31	113.99	110.86	105.30
자기자본 비율	19.06	22.91	29.84	31.14	33.83	40.87	43.23	46.73	47.42	48.71
차입금 의존도	50.01	48.51	41.32	40.28	38.40	30.63	29.06	25.63	24.14	23.12

자료: 국가통계포털, 재구성

<글로벌 500대 기업과 국내 500대 기업의 비교>

(단위: %)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차입금 대비 매출액
글로벌 500대 기업	205.0	26.5	32.3	21.6	28.1
국내 500대 기업	140.5	27.3	40.5	60.3	24.1

자료: LG경제연구원, 경영성과를 통해 본 한국우량기업의 경쟁력 평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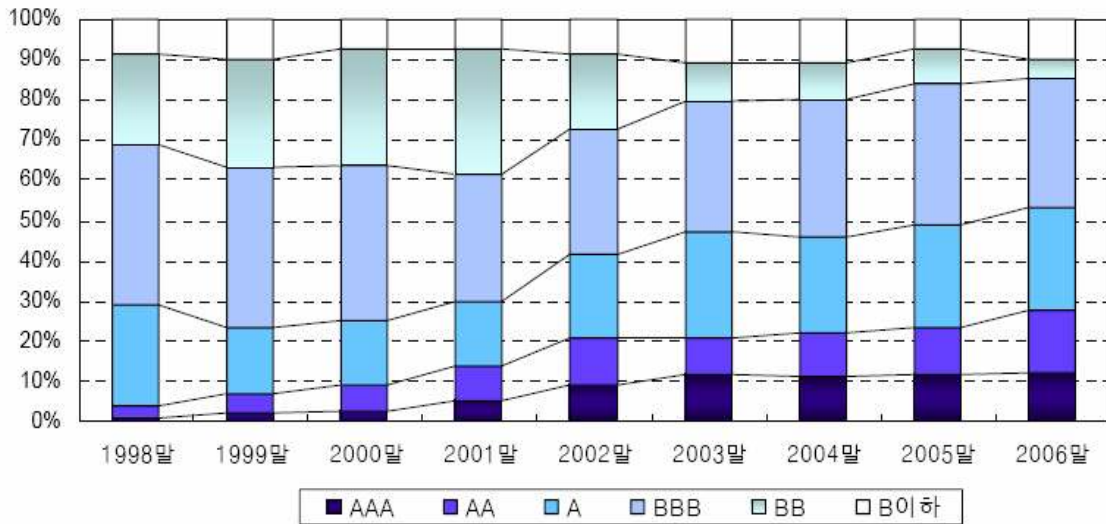
○ 기업의 신용도

- (기업 신용도) 기업들의 건전성 지표인 신용등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계기로 뚜렷한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998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의 653개(부도기업 48개 포함) 기업의 신용등급을 분석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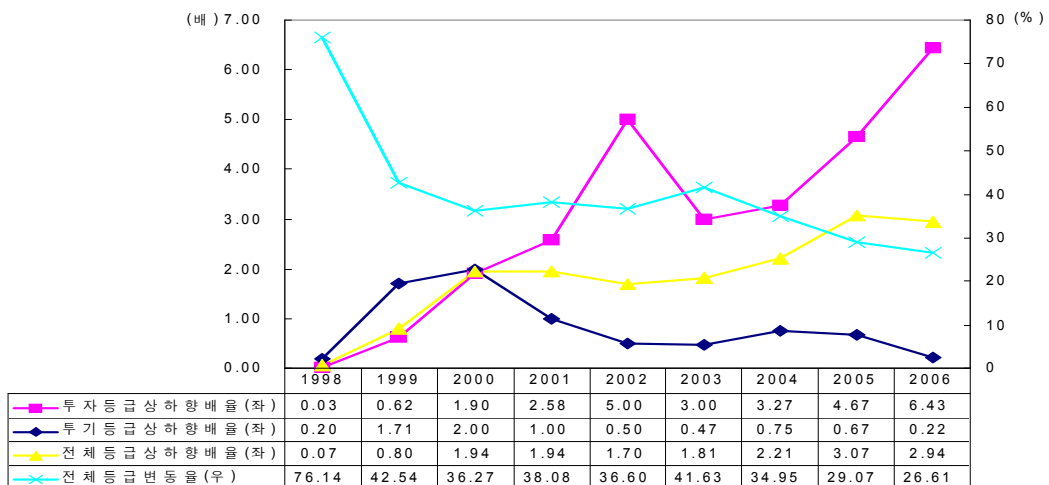
·1998년 30%에 미치지 못하던 신용등급 A군의 비중이 2006년에는 50%를 상회한 반면에, 신용등급 BB 이하군의 비중은 30%에서 10% 초반으로 줄

<신용등급별 구성을 변화추이>



자료: 한국기업평가, KR Ratings Performance, 1998-2006

<연도별 등급상하향배율 및 등급변동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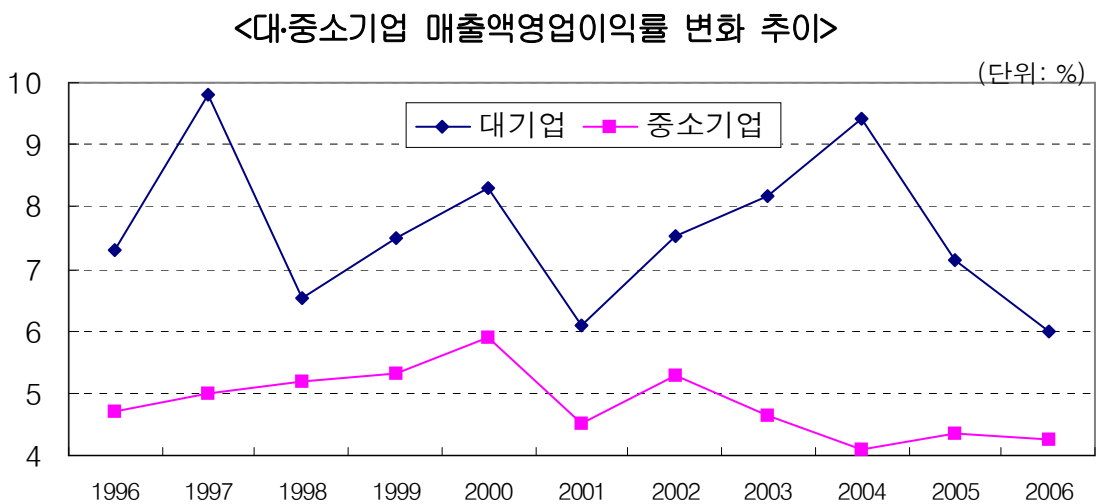


자료: 한국기업평가, KR Ratings Performance, 1998-2006.

- 신용등급변동의 경우, 2000년 이후 투자등급(AAA-BBB)의 상하향배율이 1.0을 상회하고 있어 투자등급의 신용등급은 매년 상승한 업체수가 많았고, 전체등급의 상하향배율 역시 2000년 이후 1.0을 상회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신용등급과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한편, 투기등급 상하향배율⁵⁾은 2002년 이후 1.0을 하회하고 있어 투기등급 기업군의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 업체가 상승한 업체보다 더 많아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기업의 양극화

- (기업의 양극화) 기업들의 양극화 현상을 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수익률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경상이익률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봄
- (매출액영업이익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연동하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 이 기간 동안 양극화가 진행되었던 것 보임
- ⇒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기업의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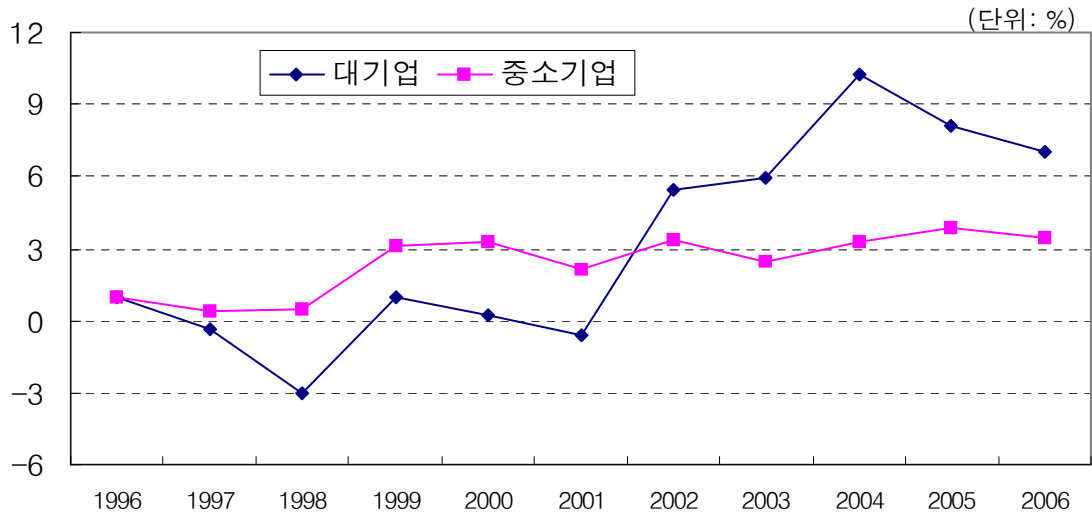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재인용

5) 신용등급 상하향배율: (신용등급 상승업체의 수/신용등급 하락업체의 수) 이며 1.0을 하회하면 당기 신용등급 하락업체의 수가 상승업체의 수 보다 많음을 의미함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격차가 심화되었다가 2005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줄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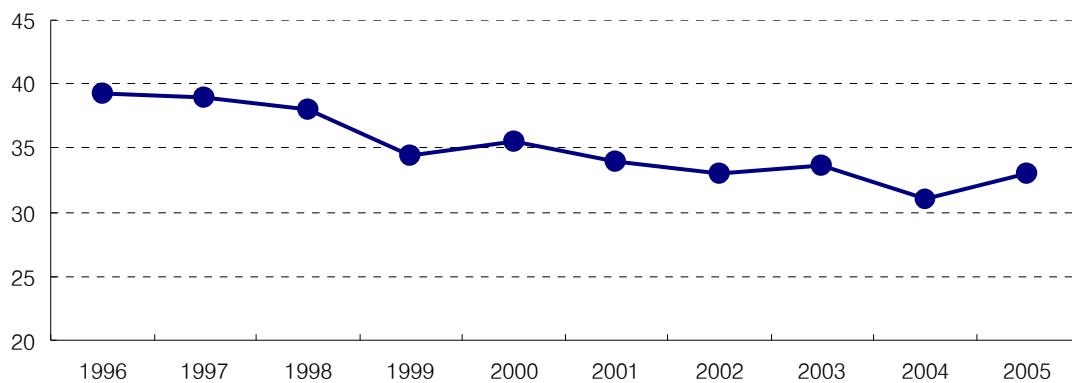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매출액경상이익률 변화추이>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재인용

·(생산성)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기업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심화되는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쳐 개인 소득 양극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재인용

주: 대기업=10

3. 기업과 함께 가계의 재무상태도 개선

○ 가계의 수익성

- (가계의 수익성) 근로자 가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수익성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2년을 정점으로 가계과 기업의 수익성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근로자 가계의 경상소득과 기업의 매출액, 경상손익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2002(=1.0)년을 기준으로, 2006년 기업의 경상손익은 0.76(1.76-1.00) 증가했으나, 근로자 가계는 0.24(1.24-1.00) 증가에 그침

·그러나, 기업의 경상손익 증가와 근로자 가계의 경상소득 증가 차이 ((A)-(B)의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음

<연도별 기업 손익과 가계 경상소득 변화 추이>

항목	단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업) 매출액	조원	415	420	465	539	541	616	662	772	842	895
	2000년 = 1.0	0.67	0.68	0.75	0.88	0.88	1.00	1.07	1.25	1.37	1.45
(기업) 경상손익	십억 원	-1,409	-7,754	7,817	6,965	1,898	28,926	31,007	60,158	54,768	50,913
	(A)2000년 = 1.0	-0.05	-0.27	0.27	0.24	0.72	1.00	1.07	2.08	1.89	1.76
(가계) 근로자가계 경상소득	천원	2,141	1,994	2,077	2,214	2,442	2,627	2,798	2,974	3,092	3,268
	(B)2000년 = 1.0	0.81	0.76	0.79	0.84	0.93	1.00	1.07	1.13	1.18	1.24
(A)-(B)의 절대치		0.86	1.03	0.52	0.60	0.21	0	0	0.95	0.71	0.52

자료: 한국은행 경제 통계국 기업통계팀, 재구성

○ 가계의 안정성

- (가계의 재무안정) 기업들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가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 경제 위협 요소가 되고 있음
 - 1997년 기업부채의 46% 수준이던 가계부채가 2006년에는 140% 수준으로 높아짐
 - 이는 기업은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인 반면에 가계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주로 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임

<연도별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업부채	406	390	391	379	352	333	344	340	368	396
가계부채	185	166	192	241	304	391	421	449	493	550
기업부채/ 가계부채	0.46	0.43	0.49	0.64	0.86	1.17	1.22	1.32	1.34	1.39

자료: 통계청, 재구성

- (개인의 고용안정) 구인구직비율은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거나 소강상태로 구인기업에 비하여 구직자의 수가 많은 불균형 상태
 - 국내 전체 취업건수는 1997년 21,214천명에서 1998년 19,938천명으로 급감한 후 2006년에는 23,151천명으로 회복하였으나,
 - 1997년 80.3이었던 구인구직비율은 IMF 직후인 1998년 17.2까지 떨어졌다가 2002년 74.8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2006년 50.1에 이름

<연도별 구인구직비율 변화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인구직비율	80.3	17.2	48	55.6	66.1	74.8	67.2	51.7	57.1	50.1

자료: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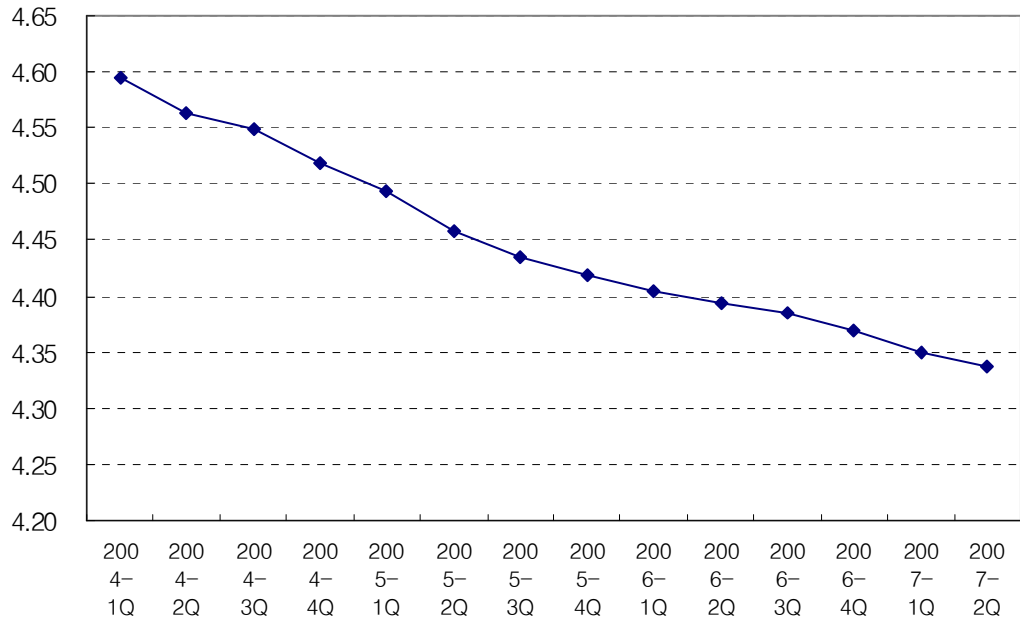
- (개인 신용도) 개인의 신용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개인 신용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개인의 신용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개인의 신용도를 등급별로 비교해 보면, 2004년 2/4분기 대비 2007 2/4분기에는 신용 1,2,3 등급의 비중은 늘어나고, 신용 8,9,10 등급의 비중은 줄
 - 평균등급 역시 4.56(2004년), 4.46(2005년), 4.39(2006년), 4.34(2007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신용지수도 상승하고 있음

<연도별 개인 신용도 변화 추이>

등 급	2004년 2/4분기		2005년 2/4분기		2006년 2/4분기		2007년 2/4분기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1	1,572,155	4.79%	1,984,030	5.94%	2,169,566	6.33%	2,388,165	6.79%
2	2,609,110	7.95%	2,788,316	8.35%	2,643,692	7.72%	2,881,818	8.19%
3	11,352,154	34.59%	11,649,298	34.89%	12,795,614	37.36%	13,080,566	37.18%
4	5,468,625	16.66%	5,364,107	16.07%	5,061,795	14.78%	5,021,159	14.27%
5	2,829,451	8.62%	2,887,931	8.65%	2,776,789	8.11%	2,840,516	8.07%
6	1,807,780	5.51%	1,733,916	5.19%	1,835,339	5.36%	1,916,789	5.45%
7	1,485,252	4.53%	1,417,322	4.25%	1,472,682	4.30%	1,629,103	4.63%
8	1,891,980	5.77%	1,928,618	5.78%	2,014,652	5.88%	2,271,781	6.46%
9	1,521,851	4.64%	1,638,581	4.91%	1,715,259	5.01%	1,679,728	4.77%
10	2,277,991	6.94%	1,992,034	5.97%	1,764,991	5.15%	1,469,034	4.18%
합 계	32,816,349	100.00%	33,384,153	100.00%	34,250,379	100.00%	35,178,659	100.00%
평균등급	4.56		4.46		4.39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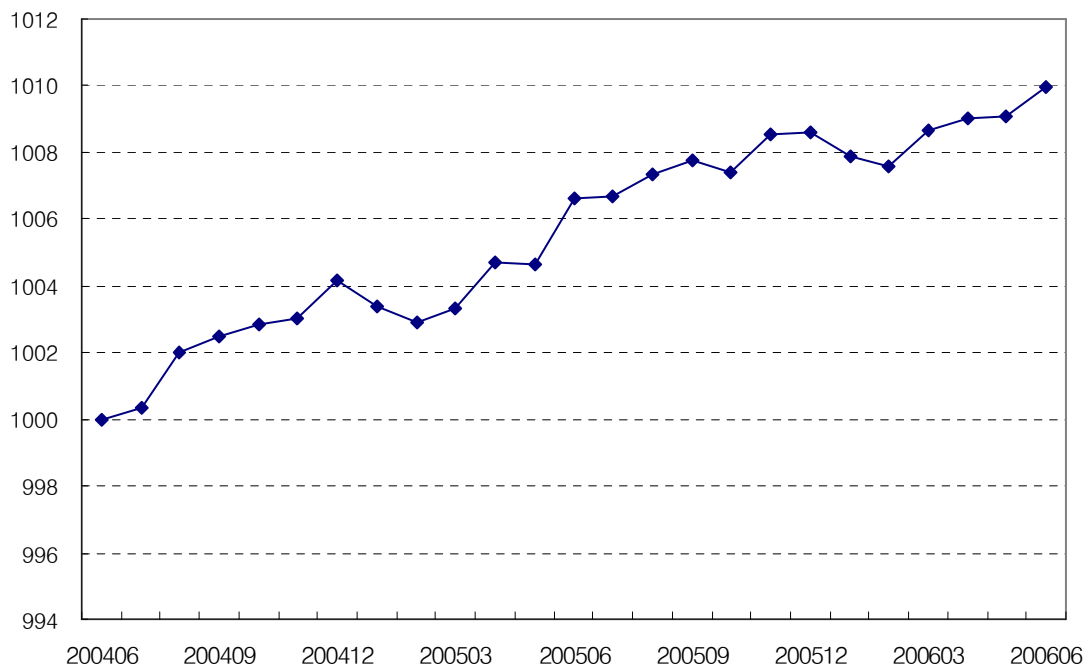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www.nice.co.kr) 개인신용 DB

<분기별 평균 개인 신용등급 변동>



자료: 신용(평균)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높음

<분기별 개인 신용지수 변동>



자료: 나이스(www.nice.co.kr) 개인신용 DB

○ 가계 소득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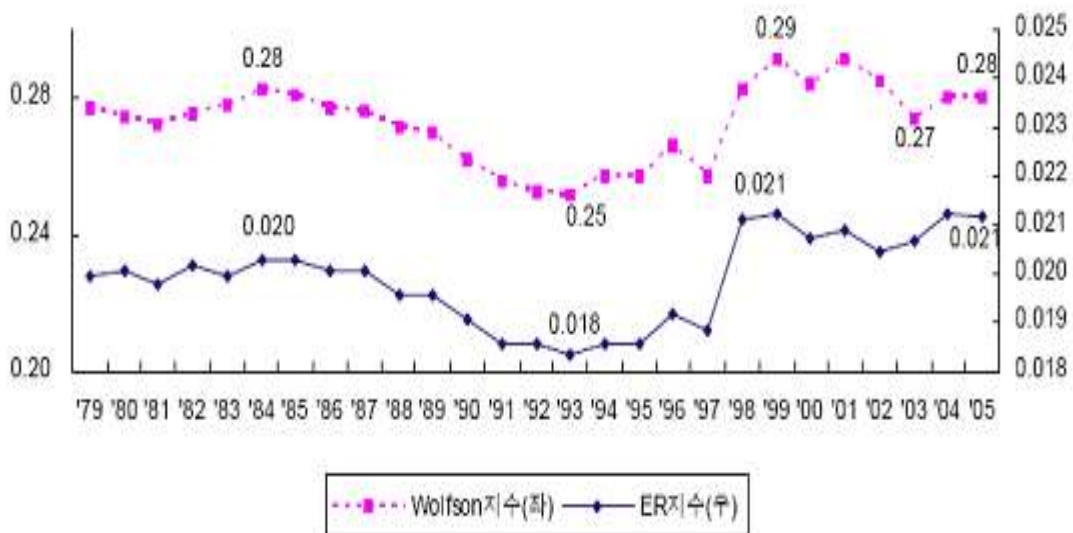
- (소득 양극화) 가계 소득의 양극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양극화 지수인 Wolfson지수⁶⁾와 ER지수⁷⁾를 살펴봄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지수는 199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후 2005년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아 소득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소득균형을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 추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재인용

6) Wolfson 지수: 중간부분이 소멸하여 양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양극화로 정의하고 지수화 함
 7) Esteban & Ray 지수: 분포의 어느 부분에서든 2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이질적 집중 현상을 양극화로 정의하고 지수화 함

4. 시사점과 개선과제

○ 정부정책의 과제

- (기업의 투자환경 마련)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하여야 함
 - 이런 관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M&A 지원책』 등의 규제 완화적 정책개발과 집행이 요구됨
 - 또한, 일본의 최저자본금 규제 폐지(2006년 5월 회사법), 영국의 영세자영업 지원수당제와 같은 규제철폐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전략을 추구하여야 함
 - 그러나 기업들의 자율적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의 유인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은 개인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⁸⁾을 추진해야 함
 - 즉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후 보조적 노동정책 보다는 근로자가 실직위험에 빠지지 않고, 실직 시에도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는 근로정책이 필요함

○ 기업의 과제

-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국내기업들의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함
 -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액총이익율은 25.8%로서,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총이익율 14.2%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요구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다양화 하여야 함

8) 실업자가 된 후에 실업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사후정책이 아니라, 교육훈련, 직업중개 등을 통해 실업발생을 예방하고, 재취업, 이직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바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 (부채구성의 질적 개선) 국내기업의 절대적인 부채비율은 100%대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단기부채비율은 60.3%로 매우 과도하며 개선이 필요
 - 글로벌 500대 기업의 단기부채비율인 21.6%와 비교하면 국내기업의 단기부채비율은 60.3%는 3배 수준임
 - 과도한 단기부채는 금리, 환율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외부충격에 큰 부담이 됨
- (신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신 성장 동력 발굴, 사업구조 개편 등이 필요함
 - 상장제조업체의 유보율이 650%를 넘어섰고, 기업유보자금이 340조에 이르므로 기업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신 수증사업을 모색하고 투자하여야 함
 - 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 모멘텀도 확보할 수 있음

○ 개인의 과제

- (가계부채)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여야 함
 - 기업 부채의 46%에 달하던 가계부채 비율이 140%가 된 현 시점에서는 개인은 가계 부채를 줄여 재무안정성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자기경쟁력 확보) 직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지속적 자기개발이 요구됨
 -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졌으므로 직업에 대해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 자기개발로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
-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 경제성숙기에 맞도록 부동산 위주의 가계자산 구성에서 금융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전환
 - 선진 경제로 갈수록 부동산 위주의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보다 금융상품과 균형을 이룬 자산구조가 가계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임

이주량 연구위원 (jryanglee@hri.co.kr, 3669-4334)

참고 자료

1. 노동패널조사, 각 년도(1998-2004), 노동연구원
2. KR Ratings Performance, 1998~2006, 2007, 한국기업평가
3.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삼성경제연구소
4. 대·중소기업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2007, 산업연구원
5. 2006년 기업경영분석, 2007, 한국은행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상승 추세

○ 10월 중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였음

- 공산품은 원유, 동,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주요 생산업체 정기보수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석유제품, 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품은 추석이후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채소류 및 과실류의 출하증가 및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7.0% 하락하였음
- 서비스는 리스 및 임대부문(전월대비 -0.4%)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항화물운임, 위탁매매수수료 및 TV광고료 상승으로 운수(1.2%), 금융(1.5%), 광고(1.3%) 등의 부문이 호조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3/4	4/4	1/4	2/4	3/4	9월	10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48(12)	40(0.9)	40(0.9)	5.0(1.8)	5.2(1.4)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2.9	4.5	7.1	5.3	8.5	8.4	-
		설비투자추계	6.3	7.4	11.8	5.1	11.3	12.1	-2.0	-8.6	-
		건설수주	7.3	9.0	37.1	27.1	26.3	26.3	-5.6	-9.8	-
		수출	12.0	14.4	16.3	13.8	14.7	14.1	9.6	-0.9	24.2
		산업생산	6.3	10.1	11.3	5.2	3.3	7.0	8.3	0.3	-
	공급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331	2,330	2,284	2,370	2,361	2,362	-
		실업률 (%)	3.7	3.5	3.3	3.2	3.6	3.2	3.1	3.0	-
		수입	16.4	18.4	21.1	13.0	13.4	14.4	7.0	-2.2	27.2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4	61	-17	0.3	45	24
무역수지 (억\$)	232		161	25	75	24	52	48	24	2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5	2.2	2.1	2.4	2.3	2.3	3.0	
	생산자물가	2.1	2.3	3.1	2.0	1.8	2.5	2.7	2.1	3.4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주가의 급등락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 **금리**: 투자은행들의 서브프라임 투자관련 손실규모 증가 가능성 등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국채 10년물 : 4.21→4.14%)
- **환율**: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최근 약세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인 반면, 주요국 주식시장 하락 등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시현 (\$/€:1.4678→1.4613, ¥/\$:110.7→110.3)

○ (국내 금융 시장) 원화 환율 급등

- **주가**: 미국 투자은행의 대규모 자산상각 등에 따른 신용불안과 중국의 추가 긴축 우려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1,990.5→1,926.2)
- **금리**: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CD금리 상승에 따른 장단기 금리차 축소 부담 등의 영향으로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34→5.46%)
- **환율**: 미국발 신용경색 가능성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역외세력 및 투신권이 달러화를 매수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관련 송금 수요 영향으로 큰 폭 상승 (906.8→917.4원)

○ (전망)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 상존으로 주가의 변동성 확대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4	3/4	4/4	1/4	2/4	3/4	11.9	11.16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990.5	1,926.2
	국고채3년(%)	4.92	4.57	4.92	4.76	5.26	5.46	5.34	5.46
	원/달러	948.9	946.2	929.8	940.9	923.8	915.1	906.8	917.4
해외	DOW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266	13,110
	Nikkei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772	15,396
	미국채10년(%)	5.14	4.63	4.70	4.57	5.02	4.59	4.21	4.14
	일국채10년(%)	1.93	1.68	1.69	1.60	1.88	1.69	1.54	1.51
	달러/유로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677	1.4613
	엔/달러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2.62	110.30
	두바이(\$/배럴)	67.17	57.33	56.71	63.12	66.42	76.64	88.61	84.92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1.15) 기준